

제목: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말씀: 이사야 61장 1-6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셨지만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씀 뒤에 4-6절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의 있을 것을 또한 증거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 1) _____의 은혜입니다.
- 2) _____의 은혜입니다.
- 3) _____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일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 오후 2시 인도: 김성민 목사
2 PM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이사야 61장 1-6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Isaiah 61: 1-6 구약 1042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놀라운 회복의 역사 (1) 김성민 목사
Message Amazing Healing Work of God Rev. Jason Kim
- 찬 양 412(469) 영혼에 그윽히 깊은 데서 다 같 이
Praise In the deepest depths of my soule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과 헌신의 기도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Only Jesus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Jason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10683 NW Valley Visata Rd. Hillsboro, OR 97124 (503)332-1941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커피숍)

새로운 교회가 예배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한 교회를 찾았고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지난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다. Tigard에 있는 한 커피 샵에서 만나자고 한다. 좋다고 답하고 그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찾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참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그 커피숍 안쪽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거의 한 시간가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나중에 물어보니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 커피숍 구석방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신다고 한다.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셨다. 물론 커피는 각자 사먹는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매주 목사님께서 심방하는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심방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다.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든 귀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 분명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날 참으로 귀한 만남의 방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가? 그 커피숍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일 것이고, 인생의 답답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하지만 커피 한 잔과 담임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 커피숍은 예사롭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였다.

우리도 이러한 장소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골방이다. 그곳은 커피숍의 좋은 커피 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답답함의 위로가 있고, 막힌 곳에 열린 문이 있으며, 인생의 답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그 장소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평안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하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 주신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알려주신다. 더 좋은 커피숍을 찾을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 주시며 보여주신다. 우리가 작정한 하루 30분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고 그 장소다. 하나님과의 커피 타임인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이틀 후 나의 아내에게 그 좋은 커피숍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도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 나도 이곳에서 자리를 펴 놓고 성도들을 만날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커피 값이 너무 비싸다. 조금 더 가깝고 괜찮은 곳을 찾아 성도들을 대접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서로에게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는다.

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3. 주일 예배 장소

현재 두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다음 달부터 생명의 삶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은행 확정

우리교회 은행 구좌를 Chase Bank Checking Account로 열었습니다.

6. 말은 분들

교회가 조금 더 정착되기까지 몇 부서를 맡아 주실 분
회계: 최윤서, 이석순
서기 기록: 곽은실

7. 헌금 안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시고 Check에 제목을 [New Church of Oregon](http://www.newchurchoforegon.org)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도 동정

박선화 성도님 한국 방문